

Korean A: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4 November 2016 (afternoon)
Vendredi 4 novembre 2016 (après-midi)
Viernes 4 de noviembre de 2016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1.

회복하는 인간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다. 목이 길고 쇠골이 가냘팠다. 손톱과 발톱은 사철 곱게 손질되었고, 여름날이면 샌들의 가죽 끈 사이로 드러난 작은 발이 아련했다. 당신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당신을 꽤찮은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나이프와 포크 쓰는 법을 알려주고는 조그만 하트 모양의 18k 펜던트를 선물했다. 이렇게 줄이 짧은 목걸이는 꼭 금이어야 해, 라고 그녀는 진지하게 충고했다. 은이나 구리 같은 건 안돼. 스스로 값을 떨어뜨리는 거야.

5 활짝 웃으며 그녀는 말을 이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눈꺼풀이 얇아서 쌍꺼풀 수술은 안해도 돼. 그런데 너는 앞트임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훨씬 눈매가 시원해질 것 같아.

10 레스토랑을 나온 당신은 그녀가 이끄는 대로 알 만한 브랜드의 상점들을 순례했지만, 끝내 그녀가 원하는 옷을 사지 않아 그녀를 서운하게 만들었다. 비스듬히 세워져 다리가 유난히 길어 보이는 전면거울 속에서, 그녀가 선물한 조그만 펜던트가 당신의 목 위로 반짝였다. 당신은 계속해서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라고 말했다. 이런 건 내 취향이 아니라니까.

15 그해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은 늦은 밤 그녀의 방에서 물었다. 난 정말 모르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통념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당신에게 등을 돌린 채 화장을 지우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얼핏 어두워졌다. 거울을 통해 당신의 눈을 마주 보며 그녀는 대꾸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만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통념 뒤에 숨을 수 있어서.

20 그때 당신은 그녀를 이해한다고 느꼈다. 여러 겹 얇고 흰 커튼 속의 형상을 짐작하듯 어렵풋하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었다. 다만 가장 안전한 곳, 거북과 달팽이들의 고요한 껍데기 집, 사과 속의 깊고 단단한 씨방 같은 장소를 원하는 것뿐이었다.

*

25 그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십 년 가까이 쏟아부은 노력들을 당신은 어머니로부터 낱낱이 들어 알고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지은 고가의 탕약들. 배꼽 아래에 흉이 생길 때까지 받았다는 쑥뜸 치료. 불임 시술을 위한 검사들. 초조하게 시술 날짜를 기다리던 시간. 잔혹하게 반복된 계류유산.

30 가족 모임에 당신이 나타나면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었다. 활짝 미소를 지은 채로, 당신은 당신의 언니를 사랑하지 않으려 애썼다. 낯선 여자를 바라보듯 그녀를 보려 애썼다. 그녀가 웃을 때면 장난꾸러기처럼 찡그러지는 콧잔등을 다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혈육을 향해서만 느낄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친숙한 감정을 당신의 내부에서 깨우지 않기 위해 애썼다. 당신의 마음을 최대한 차갑게, 더 단단하게 얼리기 위해 애썼다.

*

- 35 당신은 즐기 시작한다.
 마침내 기억해낸 친숙한 번호의 버스에 올라, 맨 뒷좌석의 창가 자리에 앉은
 직후부터다.
 가장 막히는 구간을 따라 마을버스가 당신의 방을 향해 흘러가는 동안, 정거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과 요란한 지역 광고 멘트가 수차례 커다랗게 흘러나오는 동안, 당신은
 40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준다. 옆 사람의 어깨에, 창문에 고개를 꺾어 기댄다. 자세
 때문에 목이 끊어질 듯 아프다. 차라리 깨어버리면 좋으련만, 눈을 뜨려 할 때마다
 인정사정없이 눈꺼풀이 밀려 내려온다. 마침내 입가에 침까지 흘리며 당신은 준다.
 으음, 음, 노파처럼 앓는 소리를 낸다. 수차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창문에 이마를
 45 부딪친다. 당신은 손을 들어 입가를 닦아낸다. 무디디무딘 눈꺼풀을 치뜬다. 다시
 눈꺼풀이 밀려 내려온다.

*

- 그녀는 삼십칠 킬로그램까지 몸무게가 줄었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고통을
 호소했다. 아파, 아파, 라고 아이처럼 가느다랗게 비명을 질렀다. 아빠, 나 좀
 살려줘, 라고 그녀가 애원하자 무뚝뚝한 아버지의 턱이 덜덜 떨렸다. 덩치 큰 형부는
 뒤돌아서서서 울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감싸 권 채 아가, 아가, 라고 속삭였다.
 50 당신은 자책을 멈추지 못했다.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 라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고 말하려 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한강 <노랑무늬 영원> (2012)

2.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5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10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뒤투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15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20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정끝별 <삼천갑자복사빛> (2005)

* 도반: 서로 도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